



평창올림픽 규모 '사상 최대'

2월9일 개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 올림픽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동계 올림픽으로 치러진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9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해 이날 오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등록됐다. 참가국과 선수 규모에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88개국이 참가한 2014 소치동계올림픽보다 4개국 67명의 선수가 늘었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실상 종목에 마지막으로 전 종목의 올림픽 출전권이 확정됐으며 미국과 캐나다, 노르웨이 등 주요 참가국을 필두로 각국 대표단이 속속들이 입국하고 있다.

처음으로 선수 명단을 확정된 미국은 역대 올림픽 사상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242명의 선수를 등록했으

92개국 2925명 선수 출전

며,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각 226명, 11명의 선수 명단을 확정했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은 15개 전 종목에 144명, 북한은 5개 종목 총 22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특히,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우리나라 선수 23명과 북측 선수 12명을 합쳐 총 35명의 선수가 호흡을 맞춘다.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들은 15개 전 종목에 걸쳐 총 10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동계올림픽 무대에 첫 선을 보일 국가들도 6개국에 이른다.

말레이시아(피겨스케이팅, 알파인스키), 싱가포르(소프트볼), 에콰도르(크로스컨트리스키), 에리트레아(알파인스키), 코소보(알파인스키), 나이지리아(복합레이, 스텔레톤)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평창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100개 이상의 금메달이 걸린 대회다.

소치동계올림픽보다 4개의 금메달이 많은 역대 최고 규모인 102개의 금메달(실상 70개, 빙상 32개)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은 참가 국가와 선수단, 메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지구촌 최대 규모의 겨울 스포츠 축제"라면서 "경기운영은 물론 각종 서비스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기미한 가장 문화적이고, 가장 IT적인 올림픽을 선보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국 정보와 종목별 경기 일정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올림픽 출전 후회없이 대표생활 마무리"

노선영, 평창올림픽 참가

노선영(29·콜빙팀)이 고심 끝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노선영은 28일 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일주일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 대표 생활 마지막인 평창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고민 끝에 올림픽에 출전해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대표 생활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됐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올림픽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에 나설 예정인 노선영은 평창올림픽 출전 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노선영은 지난 24일 선수촌을



21일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인사이드 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 경기, 한국 노선영이 빙판을 질주하고 있다.

떠났다. 그러나 28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으로부터 올림픽 출전권을 재배정받았다.

여자 1500m 출전권을 확보했던 러시아 선수 2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승인한 169명의 러시아 선수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2순위였던 노선영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노선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국가대표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국가를 위해

뛰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고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영 개인의 의사가 됐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백철기 감독과 연맹은 노선영을 설득하겠다는 자세였다.

김상항 빙상연맹 회장은 연맹에도 알리지 않고 노선영의 자택을 찾아가 사과했다.

결국 고심 끝에 노선영은 평창올림픽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뉴시스

신태용호, 2연승 도전... 내일 자메이카와 평가전

터키에서 동계 전지훈련 중인 신태용호가 '복중미의 복병' 자메이카와 물에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30일(한국시간) 오후 8시 터키 안탈리아 마르타 스타디움에서 자메이카와 경기를 갖는다.

한국은 지난 28일 몰도바와의 첫 경기서 김신욱(전북)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두 번째 상대인 자메이카는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한

국(58위)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4계단 높은 55위다.

역대 A매치 전적에서는 2승 1무로 한국 대표팀이 우세하다.

한국은 가장 최근 맞대결인 2015년 10월 서울에서 치른 평가전에서는 3-0으로 이겼다.

유럽에서 뛰는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 등은 합류하지 못했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K리그 선수들 중심으로 팀을 꾸렸다. 이번 전지훈련과 평가전은 러시아

월드컵 최종엔트리에 승선할 국내파 유망 가라기 성격이 짙다.

신 감독은 자메이카전에서 국내파 주축 선수들의 조직력 끌어올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몰도바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해 좋은 모습을 보인 김신욱, 이재성(전북), 장현수(FC도쿄), 이근호(강원) 등의 선발 출전이 예상된다.

신 감독은 자메이카전에서 과격과 결과를 지켜본 후 다음달 3일 라트비아와의 최종 평가전에서 월드컵 본선에 나갈 국내파 선수들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김연경, 4개국 리그 우승 주역 대기록 달성

'배구 여제' 김연경(30·상하이)이 네 나라에서 우승을 경험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상하이는 27일 중국 상하이 루안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 여자배구 슈퍼리그 2라운드 라오닝과 흥경에서 세트스코어 3-0(25-23 25-20 25-22)으로 승리하며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상하이의 17년 만의 정규리그 우승에는 김연경이 있었다.

김연경은 이날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18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김연경은 이 경기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에서 우승을 거머쥔 김연경은

4개국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2005년 흥국생명을 통해 프로 데뷔한 김연경은 V리그에서 세 번 우승

(2005~2006, 2006~2007, 2008~2009)을 이뤄냈고, 일본 JT마베리스 시절에는 2010~2011 시즌 팀을 정상에 올려놨다. 이후 유럽 최고 무대인 터키 리그로 진출해 6시즌간 활약하며 당시 소속팀 페네르바체에 리그 우승 2회(2014~2015, 2016~2017) 터키컵 2회(2014~2015, 2016~2017) 유럽배구연맹(CEV) 챔피언스리그 1회(2011~2012) 우승을 안겼다.

올 시즌 중국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연경은 이번에도 우승을 만들어 내면서 월드컵대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입증했다.

/뉴시스

정현, 테니스 세계랭킹 수직상승 29위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22·한국체대)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역대 한국인 최고 세계랭킹이다.

정현은 29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 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에서 29위에 올랐다.

28일 호주 멜버른에서 막을 내린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한 정현은 랭킹 포인트 720점을 추가해 종전 58위에서 29위로 경천 뛰어올랐다.

역대 한국 선수 최고 세계랭킹이다. 이전 최고랭킹은 2007년 US오픈 16강에 오른 이형택(42·은퇴)의 36위였다.

정현은 호주오픈에서 알렉산드르즈 베레프(21·독일·5위)와 노박 조코비치(31·세르비아·13위) 등 강적을 연

달아 꺾으며 한국에 '정현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테니스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4강 진출의 신화를 일컫는다.

종전 한국 선수의 최고 성적은 1981년 US오픈 여자 단식 이덕희(66·은퇴), 2000년과 2007년 US오픈 남자 단식 이형택의 16강이었다.

리파엘 나달(32·스페인)이 세계랭킹 1위를 굳게 지켰고,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로저 페더러(37·스위스)가 2위를 유지했다.

호주오픈 준우승자 마린 칠라치(30·크로아티아)는 6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고,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7·불가리아)가 3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다.

/뉴시스



호주오픈 4강에 올라 한국테니스 역사를 새로 쓴 정현 선수가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꽃다발을 들고 승선사를 하고 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